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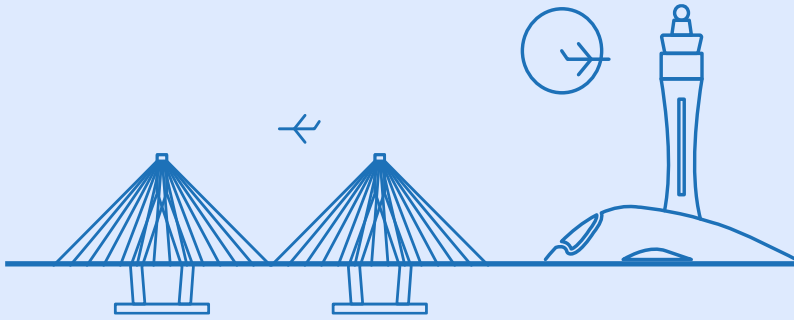
발행일 2024. 10. 18.(금) 통권 제262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5 홍보자료
- [부록]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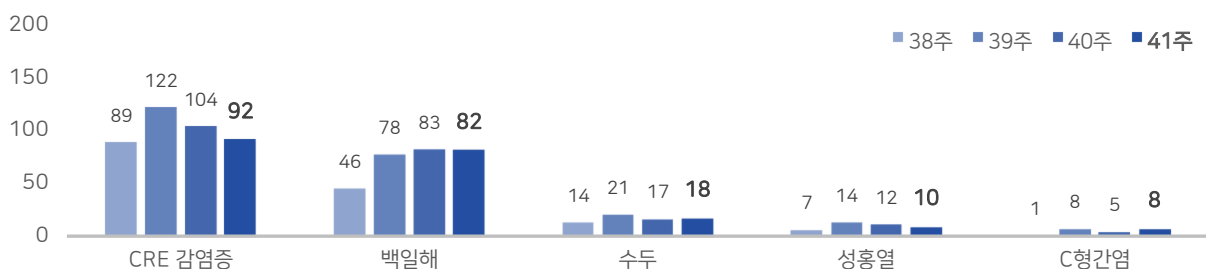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43,216건, 백일해 25,360건, 수두 23,109건, 유행성이하선염 5,253건, C형간염 5,051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3,915건, 백일해 3,042건, 수두 912건, 성홍열 433건, C형간염 417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4. 10. 18(금)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4년 누적기간(1주차~41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41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223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38~40주) 평균(226건) 대비 3건 감소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92건, 백일해 82건, 수두 18건, 성홍열 10건, C형간염 8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4				동기간대비 (1-41주)				동기간대비 (1-41주)				
		41주	40주	39주	38주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2급	수두	18	17	21	14	912	889	▲ 23	946	23,109	19,229	▲ 3,880	20,025	
	홍역					2		▲ 2	0	47	5	▲ 42	12	
	장티푸스					2		▲ 2	2	28	16	▲ 12	32	
	파라티푸스					1	2 ▼	1	1	22	20	▲ 2	29	
	세균성이질					3	2	▲ 1	2	33	28	▲ 5	2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5	▲ 4	7	223	184	▲ 39	198	
	A형간염	1	1		2	52	46	▲ 6	199	950	1,057	▼ 107	2,404	
	백일해	82	83	78	46	3,042	1	▲ 3,041	610	25,360	46	▲ 25,314	5,114	
	유행성이하선염	4	3	10	3	273	365	▼ 92	329	5,253	6,566	▼ 1,313	6,385	
	풍진												0	
	수막구균 감염증								0	15	8	▲ 7	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1	1			26	33	▼ 7	24	343	320	▲ 23	285	
	한센병								0	2	2	-	0	2
	성홍열	10	12	14	7	433	21	▲ 412	122	4,655	526	▲ 4,129	1,661	
	VRSA 감염증									1		▲ 1	2	
	CRE 감염증	92	104	122	89	3,915	2,369	▲ 1,546	2,184	43,216	30,268	▲ 12,948	25,839	
	E형간염		1	3		37	26	▲ 11	23	588	427	▲ 161	449	
3급	파상풍					4	2	▲ 2	1	23	19	▲ 4	20	
	B형간염					16	11	▲ 5	17	205	255	▼ 50	275	
	일본뇌염			1		1		▲ 1	0	6	12	▼ 6	8	
	C형간염	8	5	8	1	417	487	▼ 70	532	5,051	5,828	▼ 777	7,030	
	말라리아	3	3	7	8	116	120	▼ 4	76	648	720	▼ 72	477	
	레지오넬라증		1			27	17	▲ 10	23	329	366	▼ 37	328	
	비브리오패혈증	1				3	7	▼ 4	4	38	58	▼ 20	49	
	발진열					1	1	-	0	1	11	12	▼ 1	6
	쯔쯔가무시증					3	7	▼ 4	7	1,048	1,043	▲ 5	902	
	렙토스피라증						1	▼ 1	1	27	39	▼ 12	56	
	브루셀라증						1	▼ 1	0	5	4	▲ 1	5	
	신증후군출혈열					6	3	▲ 3	3	210	247	▼ 37	184	
	CJD/vCJD					6	2	▲ 4	3	51	55	▼ 4	52	
	당기열	1				10	10	-	0	5	158	134	▲ 24	79
	큐열						3	▼ 3	1	43	45	▼ 2	48	
	라임병					1	7	▼ 6	2	18	31	▼ 13	17	
	유비저									2	2	-	0	1
	치쿤구니야열									2	10	▼ 8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		3		▲ 3	2	111	170	▼ 59	158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 2	1	
	옴폭스									13				
	매독	2	4	4	3	125				2,207				
	매독(선천성)									11				

- 41주차(2024. 10. 6. ~ 2024. 10. 12.) 전수감시신고 현황은 2024.10. 18(금)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매해 통계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0-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E형간염은 최근 4년(2021-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0-2024)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리씨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4-2025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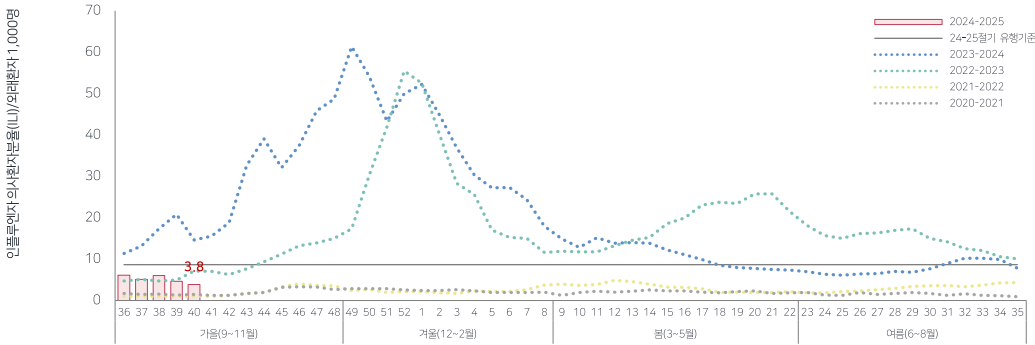
- (전국)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8명으로 전주(4.6명) 대비 감소

※ 2024-2025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8.6명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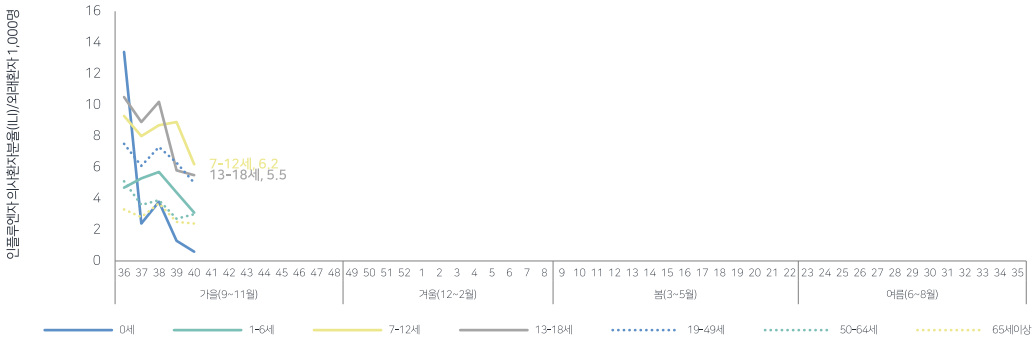
구분	2024년							
	33주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전국	10.2	9.9	7.8	6.1	5.1	6.0	4.6	3.8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x 1,000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주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 (전국) 40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494명으로 전주(572명) 대비 감소
- (전국) 40주차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환자는 7명으로 전주(9명) 대비 감소
- (전국) 40주차 코로나19바이러스 입원환자는 146명으로 전주(172명)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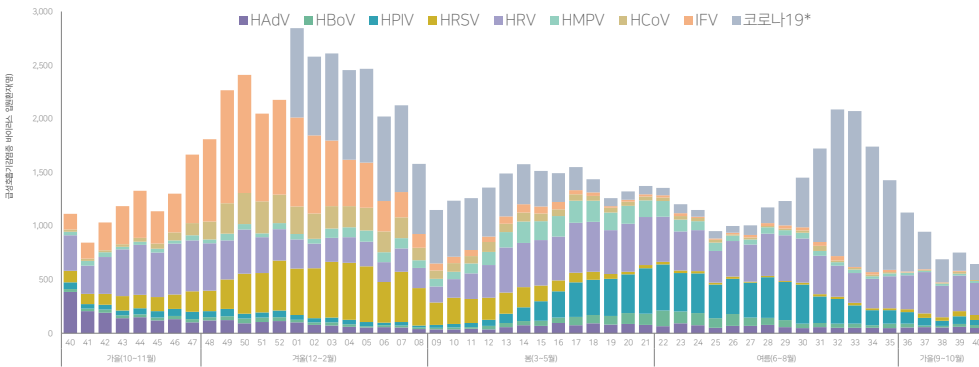
- 40주차(2024.9.29~2024.10.5) 표본감시 현황은 2024.10.14.(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4년도 40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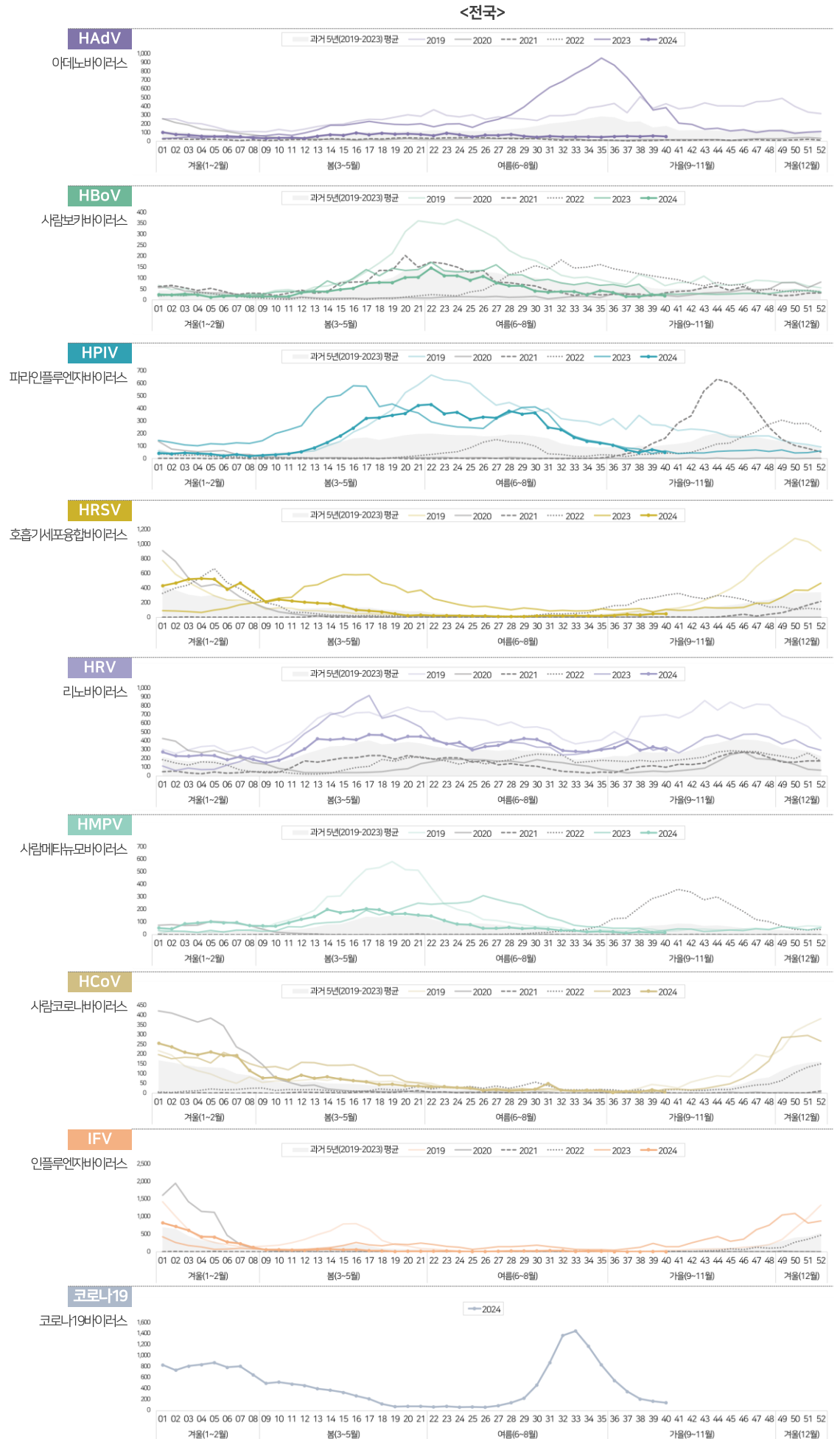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8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코로나19는 2024년 1주부터 포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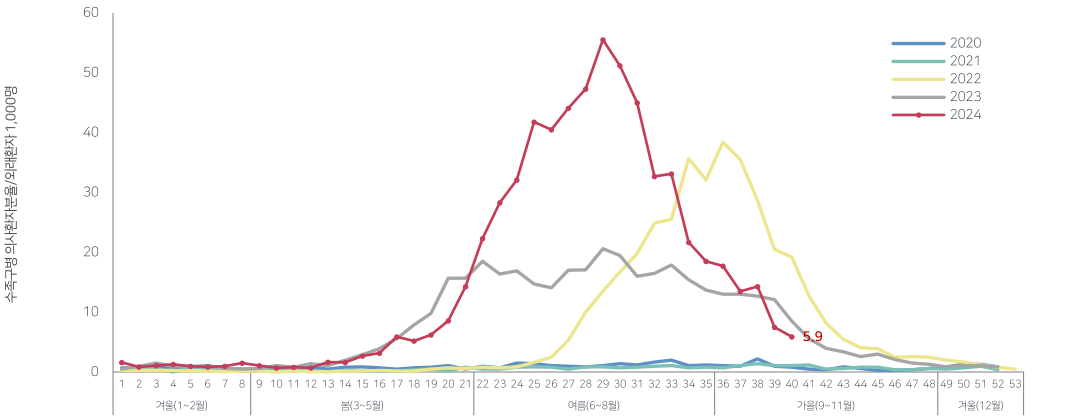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40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9명으로 전주(7.5명) 대비 감소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4년							
	33주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전체	33.1	21.7	18.6	17.7	13.5	14.3	7.5	5.9
전국 0-6세	48.6	32.0	27.1	25.4	19.2	20.2	10.8	8.7
7-18세	7.5	5.3	3.8	4.1	3.4	4.0	2.3	1.3

2020-2024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4년 40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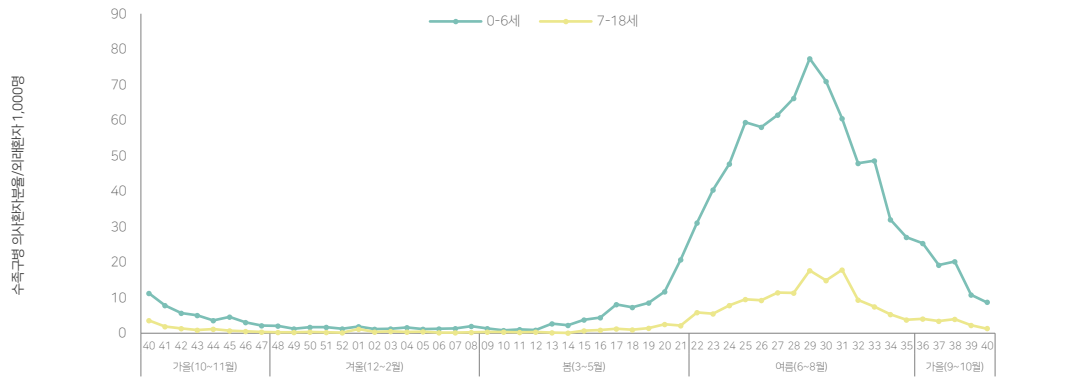


- 40주차(2024.9.29~2024.10.5.) 표본감시 현황은 2024.10.14.(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4년도 40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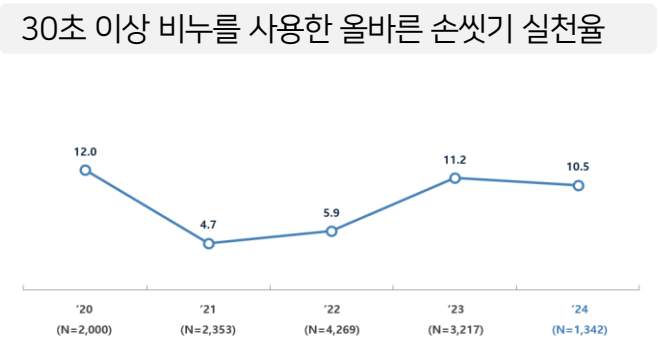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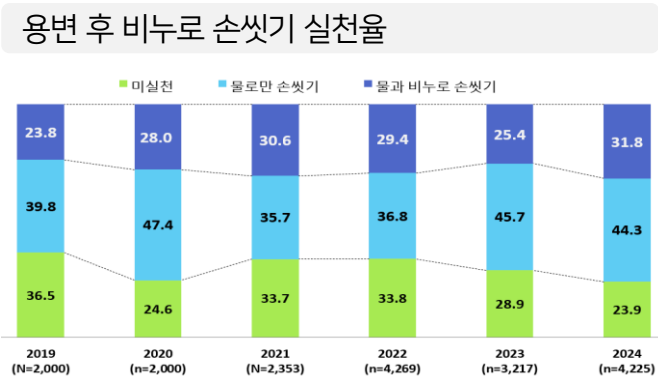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1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국내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장 쉬운 감염병 예방의 시작, 비누로 30초 동안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세계 손씻기의 날(10.15.)’ 홍보캠페인 실시 및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결과 발표

- 질병관리청은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한인간호 재단과 수행한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을 조사 하였으며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6.1%,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31.8%로 전년 (71.1%/25.4%) 대비 상승함.
 - 다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0.5%로 전년(11.2%)대비 하락함.
 -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출구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0.4%, ‘바빠서’가 24.9%,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7.7%를 차지하였으며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귀찮아서’가 26.0%,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가 20.9%순으로 나타남.
 -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 필요사항은 ‘액체비누 설치’가 23.9%, ‘물기제거도구(종이타월) 구비’가 20.5%,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이 15.2%를 차지함.
 - 손씻기 실천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손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10.5%)으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쉽고 비용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으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하여 기침예절과 함께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등 평소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 습관화할 것을 강조함.



※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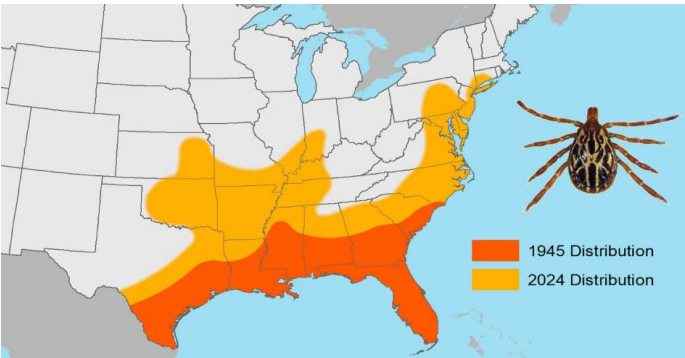
국외

리케치아증

- (미국) 진드기 서식지 확대로 인한 발생 지역 확장
- 코네티컷 주에서 *Rickettsia parkeri* rickettsiosis 환자 최초 확인

- 미국 코네티컷주 농업 실험소의 매개체 및 인수공통감염 센터에서는 지난 9월 말 걸프 코스트 진드기에 의한 리케치아 파케리 리케치아증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음을 발표함.
 - 이전에 리케치아 파케리 리케치아증은 주로 미국 남동부에서 보고되었으나, 최근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여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코네티컷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었음.
 - 관련 당국은 지구 온도 상승, 생태학적 변화, 재산림화, 지역 간 교류 증가와 진드기와 관련 병원체 및 여러 진드기 종의 분포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함.
- 기존에는 남부 대서양 연안과 멕시코만에 접한 해안 지역에 걸프 코스트 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최근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등에서도 진드기 개체군이 확인되면서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의 진드기 서식지 확대가 보고되고 있음.
 - 기후변화 외에도 철새가 걸프 코스트 진드기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중부 및 북부 주 지역으로 전파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코네티컷 보건당국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다양한 진드기들로 인해 아래 표와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원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함.
 - 또한 최근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진드기 매개 질병의 전파 및 확산 양성, 위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진드기 교상을 예방하기 위한 살충제의 사용, 진드기 노출 후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1945년&2024년 미국 걸프 코스트 진드기 분포 변화



미 북동부 지역의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병명	주요 매개체	주요 증상	특징
로키산홍반열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미국 개 진드기 (<i>D. variabilis</i>) 등	붉은 반점 형태의 발진	항생제 치료 지연 시 치명률 최대 40% 이상
라임병 (Lyme Disease)	참 진드기 (<i>Ixodes</i> 속) 등	유주성 홍반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드기 매개 질환
바베스열원충증 (Babesiosis)	참 진드기 (<i>Ixodes</i> 속) 등	말라리아 유사 증상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 존재
아나플라즈마증 (Anaplasmosis)	참 진드기 (<i>Ixodes</i> 속) 등	열, 오한, 두통, 호흡부전 등	위험요소: 치료 지연, 노인, 면역저하자
포와산 바이러스 (Powassan virus)	참 진드기 (<i>Ixodes</i> 속) 등	일부 뇌수막염 증상 유발 가능	중증 뇌염으로 진행 시 치명률 약 10%
에리히히아증 (Ehrlichiosis)	론스타 진드기 (<i>A. americanum</i>) 등	발열, 오한, 뇌염 발진(주로 어린이)	여름철(7~8월)에 주로 발생 보고

※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제 39호(2024. 10. 10.)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외 었폭스

- (호주) 2022년 Clade II 유행 시작 이후 최다 발생
- 2023년 이전 발생 대비 4배 이상 발생 증가 (2024년 누적 발생 857명)

- 호주는 2024년 5월 이후 었폭스 Clade II b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소규모 유행으로 인해 총 144명의 환자가 보고되었고, 2023년 산발적 발생으로 26명의 환자만이 보고되었으나 2024년 이후 특히 5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8월과 9월에 환자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이후 보고된 누적 1,027명의 환자 중 516명은 뉴사우스웨일스주(50%)에서, 382명은 빅토리아주(37%)에서 발생하여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인구가 밀집된 2개주에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는 퀸즐랜드주(8%), 캔버라(2%) 등 순으로 환자가 발생함.
 -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46%), 40대(22%), 20대(18%) 순으로 나타나 주로 젊은 남성들의 감염이 확인됨.
 - 한편 2024년 5월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보고된 환자 중 예방접종 2회 완료는 37%, 1차 접종만 시행한 경우는 14%, 나머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호주 보건당국은 최근 었폭스 발생 증가 상황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나, 각 주의 보건당국은 급증 상황 공유와 함께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2024년 3분기에 접어들어 후 400명 이상 환자발생이 급증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었폭스 유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행을 겪고 있음을 발표함.
 - 또한 대부분의 중증 입원 사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 혹은 불완전 접종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MSM이나 성 노동자와 같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28일 간격 2회 백신 접종 완료를 권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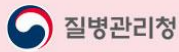
호주의 분기별 었폭스 발생 현황(2022년 1분기~2024년 3분기)



※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제 39호(2024. 10. 10.)







엠폭스(Mpox)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엠폭스(Mpox) 유행지역을 여행중이신가요?

-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 감염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 발병 초기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권태감, 호흡기 증상(인후염, 코막힘, 기침 등) 등이 나타나며, 1~3일 후 발진 증상이 나타남
※발진은 주로 생식기, 항문, 직장부위, 구강 등 피부접촉에 발생하며, 가려움증 및 통증이 있을 수 있음

엠폭스(Mpox), 이렇게 예방하세요! ✓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 접촉 등) 삼가**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를
포함한 작은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 삼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손씻기,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등]

※ 귀국 후 행동요령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 자가 모니터링
-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외여행력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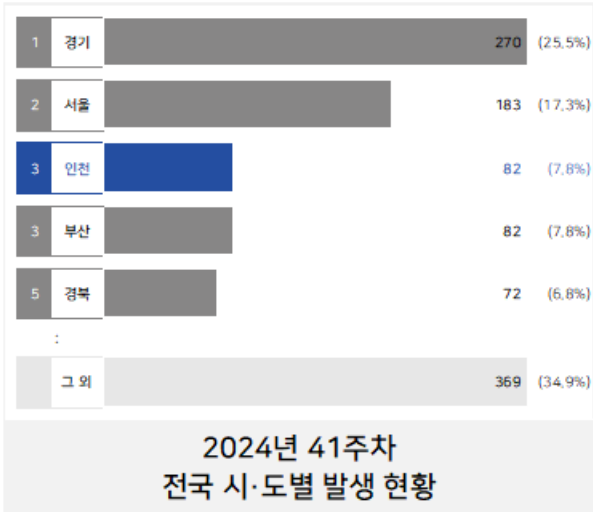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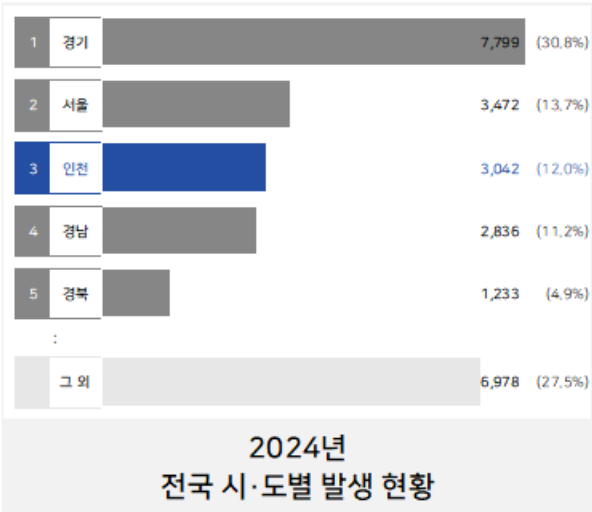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7.15.)
- ☞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21.)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7.)
- ☞ 콜록 콜록 백일해, 최근 10년간 동기간(1.1.~4.24.) 대비 최다 발생 !! 우리 아이 예방접종(총 6회) 꼭 챙겨주세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4.26.)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전국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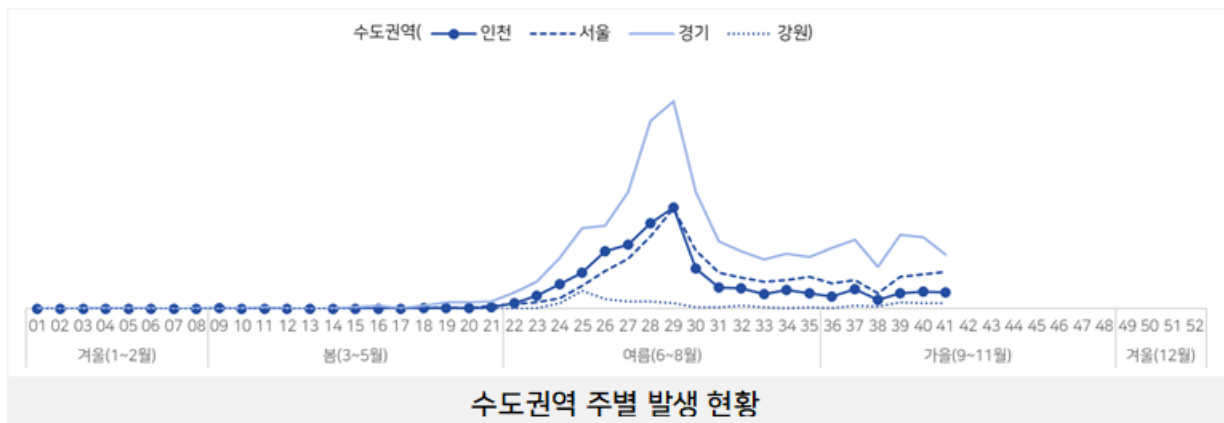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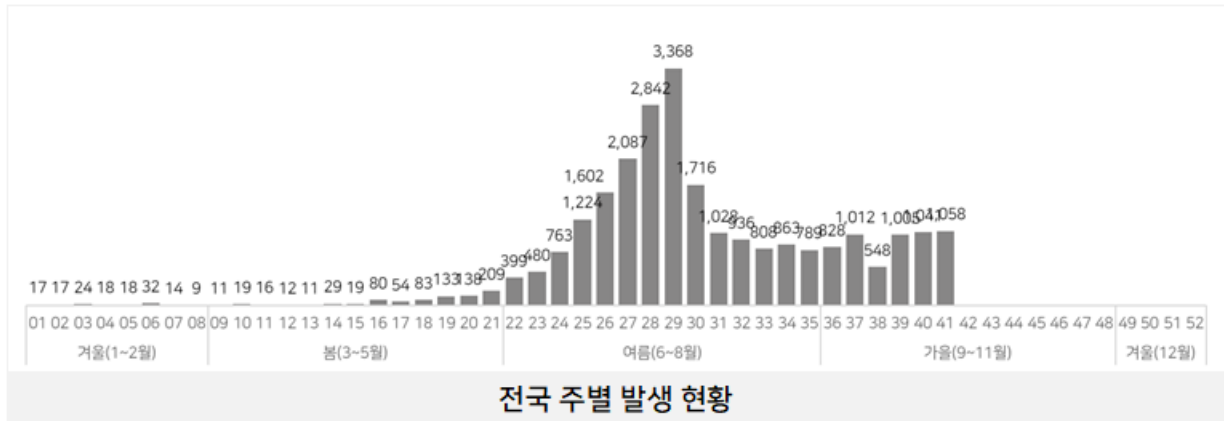
- **누적** 2024년(1.1.~10.12.) 백일해 환자 25,360명 발생
 - 경기(7,799명, 30.8%), 서울(3,472명, 13.7%), 인천(3,042명, 12.0%), 경남(2,836명, 11.2%), 경북(1,233명, 4.9%) 등의 순으로 인천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주간** 41주차(10.6.~10.12.) 백일해 환자 1,058명 발생
 - 경기(270명, 25.5%), 서울(183명, 17.3%), 인천(82명, 7.8%), 부산(82명, 7.8%), 경북(72명, 6.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주별 현황

○ 전국적으로 증가세 지속

- **전국** 41주차(10.6~10.12.) 1,058명으로 전주(1,041명) 대비 증가(▲1.6%)
- **인천** 41주차(10.6~10.12.) 82명으로 전주(83명) 대비 감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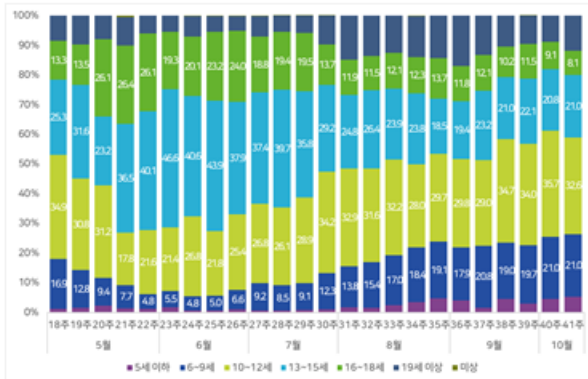


3. 성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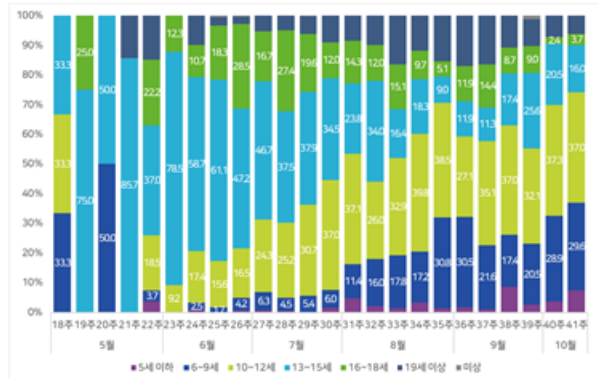
○ 중학생·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청소년(13~1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청소년(6~18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최근 아동(6~12세)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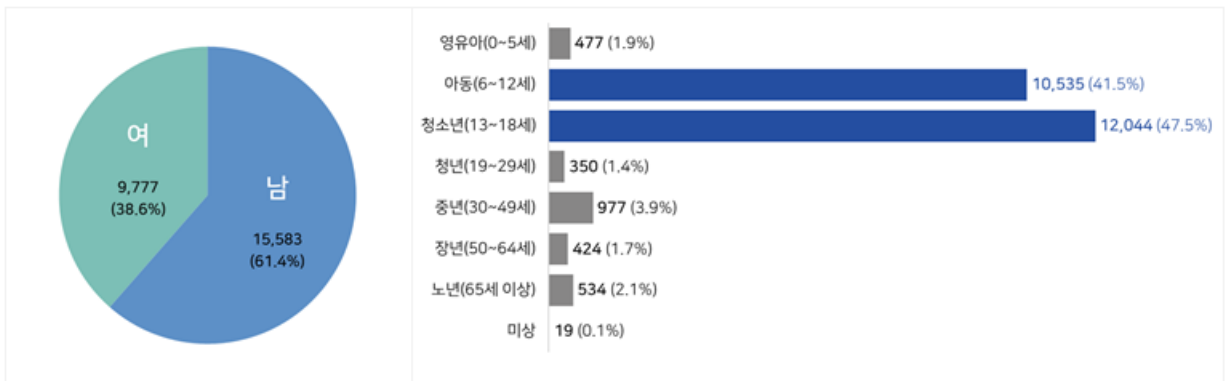
- **전국** 아동·청소년(6~12세) 비율: ^{38주} 53.7% → ^{39주} 53.7% → ^{40주} 56.7% → ^{41주} 53.7%
- **인천** 아동·청소년(6~12세) 비율: ^{38주} 54.3% → ^{39주} 52.6% → ^{40주} 66.3% → ^{41주}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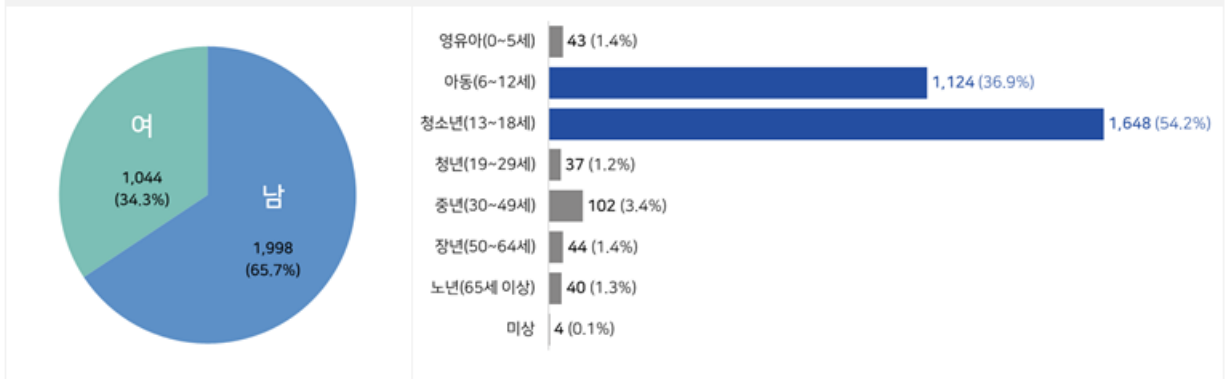
전국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0.12.)



인천 주별 연령 비율 (2024.4.28.~2024.10.12.)



전국 성별, 연령대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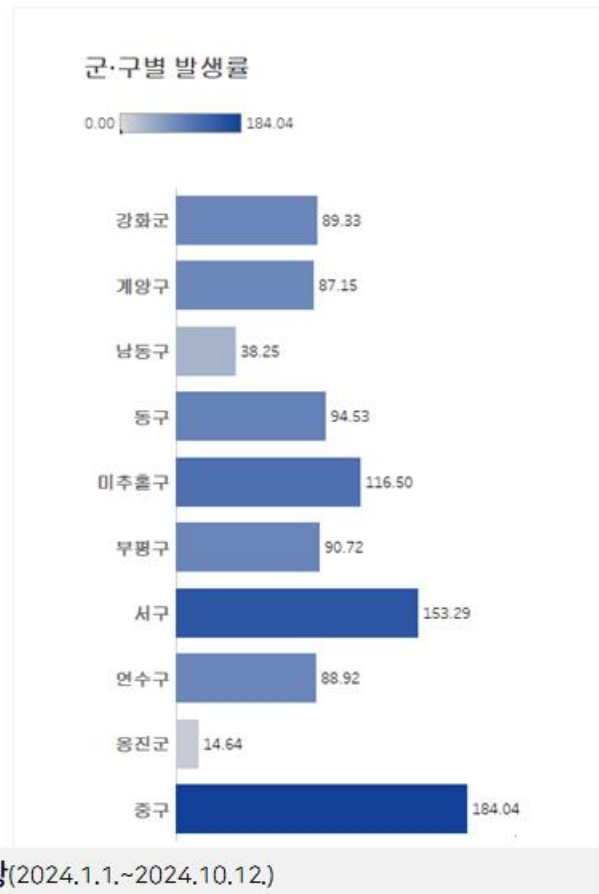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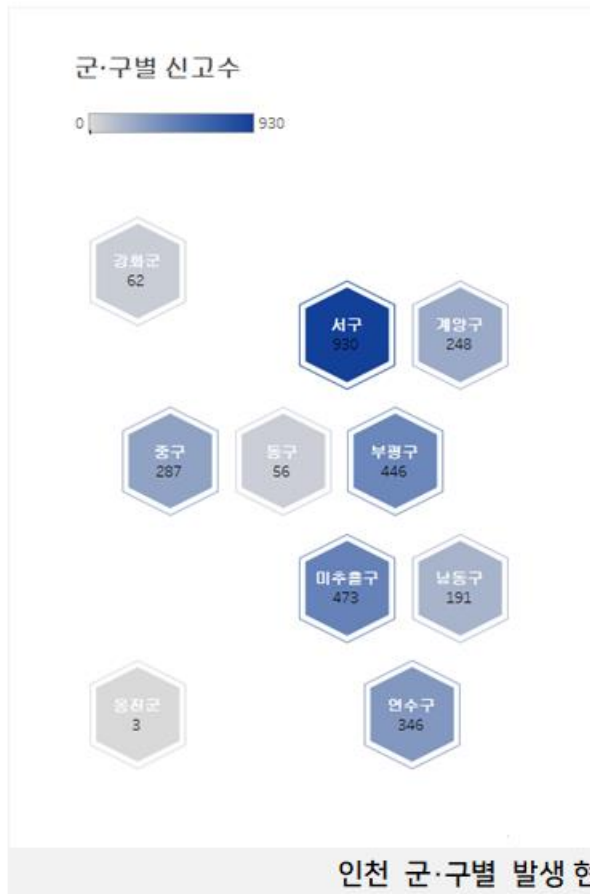


인천 성별, 연령대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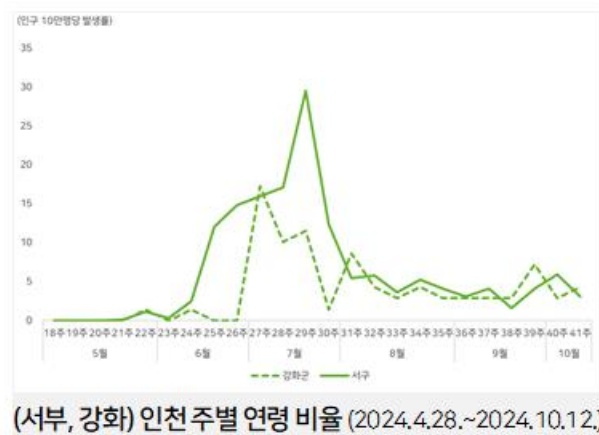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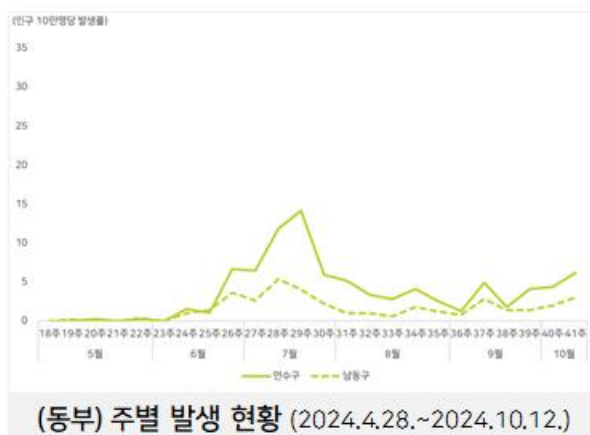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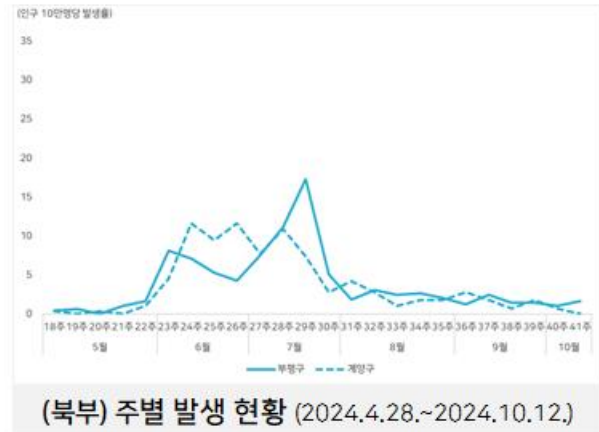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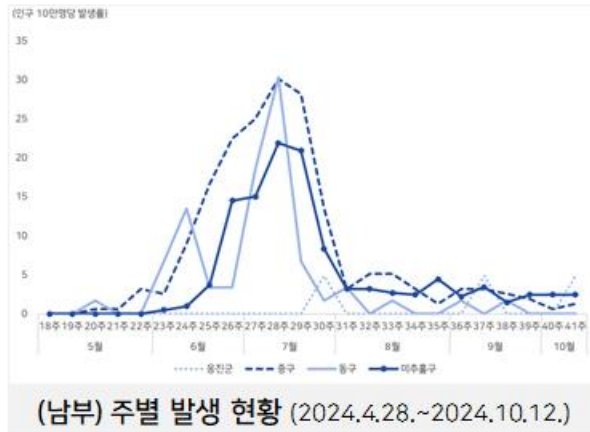
4. 지역별 현황

○ 2024년(1.1.~10.12.) 10개 군·구 모두 발생 중

- **신고수** 서구(930명, 30.6%), 미추홀구(473명, 15.5%), 부평구(446명, 14.7%), 연수구(346명, 11.4%), 중구(287명, 9.4%)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발생률** 중구(184.04명), 서구(153.29명), 미추홀구(116.50명), 동구(94.53명), 부평구(90.72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인천 군·구별 발생 현황(2024.1.1.~2024.10.12.)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